

김국영 육상 200m도 대회新... 오늘 400m 계주 3관왕 노린다

〈광주시청〉



마의 구간을 넘어서 19일 강원도 강릉시 교2동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트랙 남자고등부 3.000m 장애물 결승에서 선수들이 장애물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U대회·대만·우즈벡 유도 제패 김성연 “전국체전 썸이야”

광주·전남 수영·조정·궁도·사이클·레슬링 등서 金 수확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5·광주시청)이 100m에 이어 200m까지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19일에도 유도, 수영, 조정 등에서 금메달 수확을 이어갔다.

김국영은 이날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96회 전국체전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 7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날 100m에 이어 200m까지 모두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오르면서 3관왕의 전망을 밝게 했다.

그는 경기 뒤 광주일보와 만나 “코스 후반부에 신경을 썼는데 계획대로 이뤄졌다”면서 “내일 400m 계주 경기에도 동료들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도 간판’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도 ‘금빛 메치기’로 선수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성연은 이날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70kg이하급 경기에서 승리, 광주 선수단에 유도 첫 금메달을 안겼다.

김성연은 준결승에서 강원 동해시청 소속 이해선을 유효승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경남 유지영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연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대만아시아오픈, 우즈베키스탄 그랑프리에 이어 전국체전까지 ‘씩씩이’ 하며 최강 실력을 확인시켰다.

이승열(18·전남체고 3년)도 전날 열린 남고부 평영 1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이날 평영 200m에도 ‘금빛’ 역영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일반부 평영 200m에 나섰던 백수연(광주시체육회), 전남 수영연맹 권오국(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도 1위를 차지했다.

또 여고부 조정 무타페어 부문에 출전한 전남 문향교 소속 신선하·신지혜도 금메

달 획득에 성공했고 사격 공기소총 부문에 출전한 김용경(여·한국체대 3년)도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정애지·김유환(광주체고 3년)도 고등부 에어로빅 2인조에서 금메달을 땀고, 궁도 일반부 개인전에 나섰던 김연수(시체육회)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권세림(광주체고 2년·사이클 여고 스프린터), 박은영(광주체고 1년·레슬링 여고 자유형 51kg급)도 각각 금메달을 땀다.

한편, ‘광주시청 육상 남매’ 배찬미는 멀리뛰기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임재민(조선대 4년)은 남대학부 200m에서 은메달, 도형국(광주체고 3년)은 남고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유라(광주도시철도공사)도 52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땀다. 광주선수단은 이날 금메달 9개를 수확,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전남은 이날 3개의 금메달을 추가로 확보해 19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강릉=김지용기자 dok2000@

4년을 기다렸는데... 케빈 나, PGA 연장끝 준우승



개막전 프라이스 오픈

그리요에 아쉬운 패배

재미동포 케빈 나(3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년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쳤다.

케빈 나(32)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컨트리클럽 노스 코스(파72·7203야드)에서 열린 2015-2016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오픈 오픈 마지막 4라운드에서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케빈 나(32)는 2차 연장전에서 보기에 그쳐 버디를 기록한 그리요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올 시즌 PGA 투어에 데뷔한 그리요는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08만 달러(약 12억2000만원).

케빈 나(32)는 2011년 10월 팀베레이크 슈

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뒤 4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 돌아서야 했다.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케빈 나(32)는 4라운드 18번홀(파5)에서 티샷에 이어 두 번째 샷도 드라이버로 휘두르는 승부수를 던지며 버디를 잡아내 연장전으로 끌고가는 집념을 보였다. 18번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케빈 나(32)는 티샷을 페어 웨이로 띄우며 버디를 레이업했지만 볼은 다시 러프에 떨어졌다. 그리요도 좋지 않았다. 티샷을 잘 보낸 그리요는 두 번째 샷을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지역으로 보냈다. 먼저 친 케빈 나(32)는 볼을 지나쳐 10m 거리에 멈춰고, 그리요의 샷은 볼 1m에 붙었다.

승부가 끝난 듯했지만 그리요는 이 버디 퍼트를 놓쳤고, 두 선수 모두 파를 기록하면서 경기는 같은 홀에서 2차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케빈 나(32)가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냈지만 두 번째 샷에서 뒤땅이 나와

볼은 페어웨이 왼쪽 러프쪽으로 굴러갔다. 이 사이 그리요는 세 번째 샷을 홀 2m 앞에 떨어뜨려 다시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케빈 나(32)는 나무를 앞에 두고 세 번째 샷을 날렸지만 볼은 홀을 지나쳐 그린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케빈 나(32)는 네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파 세이브에 실패했다. 그리요는 2m 남짓한 버디 퍼트를 성공,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케빈 나(32)는 2005년 크라이슬러 클래식과 2014년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세번의 연장승부에서 모두 패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종환(27·CJ오쇼핑)은 합계 4언더파 284타를 쳐 공동 55위로 대회를 마쳤다.

재미동포 제임스 한(34)은 공동 41위(6언더파 282타), 마이클 김(22)은 공동 61위(3언더파 285타)다. 한편 세계랭킹 3위 루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26위(9언더파 279타)에 올라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무등중, KIA 타이거즈기 야구대회 우승

충장중에 12-3 대승

광주 무등중이 제9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기를 차지했다. <사진>

무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광주 충장중을 상대로 장단 12안타를 터트리면서 12-3 대승을 거뒀다.

예선전에서 순천 이수중을 3대 1로 이기고 준결승에 오른 무등중은 광주 진흥중을 14-1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고, 여세를 몰아 화려한 공세로 대회 정상을 밟았다. 2012년 제6회 대회에 이어 2번째 우승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광주, 전남·북 지역 10개 중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승팀인 무등중은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 등 부상으로 받았다. 준우승(충장중)과 3위 2팀(진흥중, 화순중)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야구용품이 각각 주어졌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도



야구용품이 참가기념품으로 주어졌다. <타이거즈기 개인상 수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 김강평(무등중) ▲우수 투수상 : 김기훈(무등중) ▲훈련상 : 최성민(1개·무등중) ▲최다타점상 : 한지은 (6타점·충장중)▲감투

상 : 김용학(충장중) ▲타격상 : 최인기(0.750·무등중) ▲최다안타상 : 이명기(8안타·충장중) ▲최다도루상 : 서유신(4개·충장중) ▲수훈상 : 이재민(무등중) ▲미기상 : 정선우(충장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배드민턴, 덴마크오픈 복식 金3씩씩이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덴마크 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 걸린 복식 금메달 3개를씩씩이했다.

남자복식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 혼합복식 고성현(김천시청)-김하나(삼성전기), 여자복식 정경은(KGC인삼공사)-신승찬(삼성전기)은 18일(현지시간) 덴마크 옌세 옌세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모두 우승을 확정했다.

세계랭킹 1위 이용대-유연성은 류청-루카이(중국)를 2-0(21-8 21-14)으로 제압했다. 지난달 일본오픈 슈퍼시리즈와 코리아

오픈 슈퍼시리즈에서 2주 연속 우승을 거둔 데 이어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이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7위 고성현-김하나는 톤토위 아흐마드-릴리야나 낫시르(인도네시아)를 2-1(20-22 21-18 21-19)로 꺾었다.

지난달 새롭게 조를 구성한 여자복식 정경은-신승찬은 덴장-자오원레이(중국)가 기권을 선언하면서 우승을 쟁겼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3위인 성지현(MG 새마을금고)은 전날 3위를 확정,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총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화순 출신 김중수 전무이사

애프터드민턴연맹 부회장 선출



화순출신의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가 아시아배드민턴연맹(BAC)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18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김중수 전무이사는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배드민턴연맹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됐다.

김중수 전무이사는 2019년 아시아연맹 총회까지 4년간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뉴스